

# “5·18 민주화운동 폄훼는 민주주의 근본 부정”

## 5·18 기념재단 창립 20주년 학술대회

### “필리핀·태국·중국 등 민주화운동에 영향 줘”

5·18 기념재단은 지난 29일 재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보수 우익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태국·중국·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일어난 여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다”며 “5·18이 촉발한 민주화의 확산은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 무대에서 퇴각하고 민주주의가 진화한 과정이었다”고 정의했다.

배 교수는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 발발 후부터 현재까지 보수세력은 ‘폭도’나 ‘북한 개입설’을 근거 없이 외치면서 광주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한국민주주의

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이어 “기억과 해석이 왜곡된 상태로 재구성되지 않게 민주주의와 역사 교육을 실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외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 각기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명제로만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런 프레임으로는 일본 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의 동의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사죄’가 아니라 ‘인권’의 프레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가 히데요시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의 연합체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재난방지나 환경·국제 범죄·지역에 집중화된 인권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지역 연합체를 만들어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역 간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94년 8월 설립된 5·18 기념재단은 지난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연 뒤 5·18 언론상 등 각종 행사를 가졌다.

이중행기자golee@

## 전남도 오늘부터 도청서

### 추석장터 진도특산품전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1일(오늘)부터 2일간 도청 1층 운선도홀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하는 추석맞이 장터를 개설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진도 경제 살리기 동참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외에 진도 특산품 부스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장터에는 농터 등 30여개 업체가 참여해 멸치, 김, 미역 등 진도 특산물과 함께 과일, 차 등 명절 선물세트 50여 품목을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문자 중 녹색나눔 회원으로 가입하면 천연 수제비누를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녹색나눔(www.greenanum.co.kr) 블로그에 있는 손목용 밴드를 제작 판매해 나온 수익금을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위해 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내 기업과 인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된장, 고추장 등을 구입해 직원 명절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또 전남도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일자리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원 격려 선물을 사회적경제 제품 및 진도 특산품으로 구매해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 향상 및 진도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는 정직한 제품에 대한 착한 소비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것으로 추석 선물로 의미가 있고,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진도 농어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새누리당 부대변인 심정우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정우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심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여수를 담당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여수시장과 국회의원에 출마한 바 있다. 심 부대변인은 “여수시와 중앙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과 여수산단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세월호 실종자 수색도 중요”

### 문재인 의원 팽목항 방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 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 31일 진도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문 의원은 단식을 멈춘 지 28일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입원했다가 이틀날 퇴원했으며, 첫 일정으로 진도 방문을 선택했다.

김현 의원과 함께 팽목항을 둘러본 문 의원은 진도 체육관으로 이동해 실종자 가족들과 1시간가량 면담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마지막 한 분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문 의원 측은 전했다.

문 의원 측은 “단식 중에도 꼭 한번 팽목항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주위에서도 모두 말했지만,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실종자 가족 면담에 앞서 범정부 차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났다.

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수습)이 끝날 때까지 진도 현장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이곳을 떠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 장관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애인 가족 환송하는 윤창현 시장

윤창현 광주시장이 지난 2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신안 증도 옐도라리조트로 1박2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노인 호흡기 회귀질환 등 중증장애인 가족을 환송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세월호 수습·보상비용,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밝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

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동 범인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 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추 실장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 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연합뉴스

해남군  
Haenam County

해남군청 직영 땅끝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 해남미소

해남미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 보세요 !!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해남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더해 가장 귀한 상품만을 엄선 했습니다.

www.해남미소.한국  
www.hnmiso.com

해남미소 061-537-1472(일사천리)  
080-859-1100(무료)